

사이코지 절(西光寺)

다케타 지역의 옛 성 아래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사이코지 절은 역사상 다케타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. 경내에는 본당, 산문, 종루 외에도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묘지가 펼쳐집니다.

사이코지 절은 에도시대(1603~1867 년)에 오늘날의 다케타시를 다스리던 나카가와 가문의 보다이지(선조 대대의 위패를 모신 절)입니다. 원래 나카가와 가문의 출신 지역인 효고현에 있었지만, 16 세기 후반 당시 사실상 일본을 지배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(豊臣秀吉, 1537-1598)의 명령으로 나카가와 가문이 다케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주했습니다. 원래 성 아래 도시 내(오늘날의 시립 도서관 부근)에 지어졌던 사이코지 절은 1679 년에 옛 성 아래 도시와 가까운 현재 장소로 옮겨졌습니다.

현재 본당에는 화살과 총을 쏠 때 사용하는 2 층의 작은 창문과 같이 흥미로운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. 본당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지만, 17 세기 후반에 지어진 문과 종루가 있는 경내는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습니다.